

낙하물 위험 민원 제기에도...구청 별다른 조치 없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외벽 붕괴

흩날리듯 '와르르'...악천후에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 "땅 흔들리며 쿵" 주민들 놀라 뛰쳐나가니 회색 먼지 가득 추가 붕괴 우려 속 140m 타워크레인 고정장치 훼손 위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과 일부 바닥층 등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다. 건물 외벽에 인접해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고정장치가 일부 훼손돼 자칫 건물뿐 아니라 타워크레인도 넘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빚어지면서 일대 주민 1000여명에 대한 긴급 대피명령도 내려졌다.

특히 현장 주변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뿐 아니라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는데도, 관할구청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에 뛰어나왔더니 종잇장처럼 무너졌다"=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건물 붕괴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사고 직후 긴급 대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부실 공사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사고는 39층짜리 건물 34~23층 외벽 등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면서 일대 차량을 덮쳤고 현장은 순식간에 썩대밭이 됐다.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과 SNS 등으로 퍼날라지면서 사고 당시 붕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인근 주민은 "땅이 흔들리며 '쿵' 소리가 나 놀라서 뛰어나갔더니 아파트 일대가 회색 먼지로 가득 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구청은 현장과 바로 인접한 주상복합 건물 일 주민 109세대와 다른 아파트 주민 370세대 등 총 479세대에 추가 붕괴 우려를 감안해 대피를 명령한 상태이다.

◇"여러차례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건물 주민들은 여러차례 위험한 현장 상황을 경고했다고 안전 조치 준수 여부의 문제점을 꼽았다.

이들은 공사 초기부터 일대 주차면 차량에 건설 현장에서 돌이 떨어지고 합판이 추락하는 등 안전 조치에 문제가 보여, 구청에 여러차례 민원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공사를 무리하게 서두르는 듯한 분위기도 전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등 악천후에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이어가는 등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것이다.

사고 현장 일대에서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안되지 않느냐"면서 "위험하다는 민원을 넣었지만 서구청에서 '이정도 비는 괜찮다', '보양작업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주민 피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선씨는 "서구청에 넣은 민원만 수백건"이라며 "그때마다 전자 민원으로 접수하라는 답변을 하거나 대충 넘어가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서구청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는데 민원 잠재우기 식이었다고 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이날 사고로 부상당한 근로자가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민들은 수백건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구청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10건 미만이며, 구두 민원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홍씨는 "민원 잠재우기 식으로 T/F팀 조직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구청은 건물에 이상이 없다는 소리만 했다"고 주장했다.

◇"140m 타워크레인도 위험"=당장, 타워크레인 업체들은 건물 붕괴과정에서 균형이 흐트러진 타워크레인이 넘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미 무너진 아파트 건물 옆에 고정해 설치해놓은 타워크레인 고정 장치가 일부 파손됐고 20도 가량 기울어 야간 강풍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업체 관계자는 "건물 외벽이 붕괴되면서 타워크레인을 건물 외벽에 고정해 놓은 브라켓이 2~3개 이미 빠진 상태다. 이미 기울어진 상태로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전도돼 버스터미널과 주변 차도 및 인도 등을 덮칠 수 있어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동 참사 생생한데...허술한 대기업 안전 의식 비난

또 현대산업개발 대형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또 시공사였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이날 건물 외벽 등이 무너져내린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공사 시공사도 현대산업개발로 밝혀지면서 대기업의 안전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광주 서구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붕괴 사고가 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는 HDC그룹 HDC아이앤스가 시행을 맡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 1~2단지로 나눠 조성되며 사고가 난 2단지의 경우 지하 4층~지상 2~39층 규모로 5개동(316세대)을 짓는다. 이중 90여세대는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지난 2019년 4월 관할자치단체의 사업 승인을

받아 같은 해 5월 공사에 들어갔다. 준공 예정일은 올해 11월이다.

지난해 광주 서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구역 철거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사고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했던 사업으로,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냈었다.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안전부장, 공무부장 등 관계자는 공사장 안전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들의 부도덕한 행위도 드러나면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 감리를 맡았던 건축 사무소 대표 A(여·59)씨가 "참사 당일 공무부장 연락을 받고 현대산업개발 현장 사무실에 갔는데, 공무부장이 공사 관련 자료를 건네며 감리 일지를 쓰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형석(광주 북구 을) 국회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이 권한이 없던 해체공사 감리 선정과 사고 원인이 된 비상주감리 결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과 사고 당일 부터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지적한 바 있다.

노동계는 즉각 규탄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 광주 본부는 "학동 참사 직후 정부와 광주, 현대산업개발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과연 무슨 대책을 수립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하청 책임자만 구속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고 현장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의 발효가 오는 27일이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동 참사' 재발 방지법 통과한 날에...

국회 본회의 통과...처벌 강화 골자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재발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체작업자가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변경신고하고 해체 작업을 실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서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당시 사업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을 건축물 철거작업을 (주)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다.

백솔건설은 당시 해체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를 진행했으며,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도 이행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table border="1"> <tr> <td rowspan="5">광주</td> <td>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td> </tr> <tr> <td>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td> </tr> <tr> <td>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td> </tr> <tr> <td rowspan="5">전남</td> <td>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td> </tr> <tr> <td>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td> </tr> <tr> <td>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td> </tr> <tr> <td>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td> </tr> <tr> <td>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td> </tr> <tr> <td rowspan="3">시외</td> <td>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td> </tr> <tr> <td>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td> </tr> <tr> <td>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td> </tr> <tr> <td></td> <td>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td> </tr> </table>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전남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시외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전남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시외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